

순천대 10·19연구소, 2022 국내 학술대회 개최

‘여순특별법’ 통과 1주년 맞아, ‘10·19의 성격과 정명’ 주제 역사학·철학·법학·사회학·문학 등 연구자·전문가 참석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구 여순연구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통과 1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강당에서 2022년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19의 성격과 정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학은 물론 철학, 법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의 성격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정명(正名)을 위한 학제적 토대를 모색하였다.

순천대 사회교육과 김성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우석대 교양대학 문동규 교수의 ‘10·19 : 짓기 어려운 이름, 그레도 지어야 한다면’ 발표를 시작으로, ▲여순사건 피해구제의 법적 기초와 범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조승현 교수) ▲‘10·19’ 정명을 위한 시론(순천대 10·19연구소 문수현 박사)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의 사회로 ▲여순항쟁의 역사적 성격 담론(여순위원회 주철희 박사) ▲여순사건의 집단트라우마와 유가족의 말하기(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김명희 교수)가 각각 발표되었다.

었다.

각 발표의 토론에는 정미경 박사(순천대 10·19연구소), 박찬모 HK교수(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정혜연 주무관(순천시청), 문현주 박사(순천대 사학과), 안진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하였다.

문동규 교수는 10·19가 다양한 사건들이 중첩되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드러난 하나의 ‘사태’라고 하면서 10·19의 전개 과정을 사건별로 구분하였다가 종합하면서 그 이름짓기를 시도하였다.

조승현 교수는 군사반란 사건이었던 10·19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서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저지른 국가폭력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희생자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수현 박사는 ‘여순사건’ 등 약 20여 개의 개념을 작명법 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에 정명에 대해 새롭게 제안하였다. 지명도 사변이나 사건이라는 용어도 지양하고, 항쟁임을 확인하면서 그 지향점을 밝히는 ‘10·19통일항쟁’이라는 용어를 시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순항쟁의 대표적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는 군인의 붕기는 민중이 호응하고 지지하면서 항쟁으로 발전하였다는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였다. 그는 역사 기록에서 적합한 용어의 선택은 대중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여순항쟁’임을 강조하였다.

김명희 교수는 10·19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의 집단트라우마를 논하였다. 특히 10·19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진행한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증언록에서 여순 10·19 집단트라우마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사회적 치유를 연구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연구성과이다. 더욱이 10·19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이 2차 연구로 확산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최관호 10·19연구소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대한 성격과 그 정명에 대한 다양한 영역별·전공별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논의될 여순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가능케 볼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고, 연구원들의 참여로 10·19연구소의 연구 역량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대 10·19연구소는 2018년부터 10·19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시선10·19>(잡지)와 ‘여순사건 증언집’(구술채록집), ‘해원의 노래’(추념 창작집) 등 다양한 저작물을 출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을 수행했던 지리산권문화연구원의 박찬모 HK교수를 편집위원장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연구와 홍보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장성교육청,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장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유치원 5원,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학차량 현황을 파악해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점검반은 운행기록장치, 안전교육 수료, 차량종합보험 갱신, 하차확인장치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차량정비 및 소화기와 구급함 등 안전장치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미흡사항 및 지적사항 있을시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지도하였다.

장성=김수권 기자



영암고, 바리스타 초청 커피 추출 체험 실시

자율동아리 ‘바커서’ 동아리 학생들 대상



영암고등학교는 지난 12일 화요일 교내 바리스타 자율동아리인 ‘바커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피 추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

졌다. 김정은 강사의 진행 아래 실시된 이번 시간은 학생들이 직접 커피를 추출해보고 커피가 추출되는 원리를 배우고 다양한 커피 종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 시간은 평소 커피에 관심이 많고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의 시간이 되었다.

추출 체험에 참여한 학생 김00은 “이번 체험 시간을 통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커피 종류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나주공공도서관, 문학평론가 신형철 강연

전라남도교육청 나주공공도서관
목사골 아카데미

문학과 삶, 비평의 힘

강사명	신형철 교수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주요저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물락의 에티카 출간
운영기간	7.23.~8.13. (매주 토요일/14시~16시)
운영장소	나주공공도서관 대회의실(3층)
신청방법	도서관 누리집 - 독서문화진흥 - 수강신청 - 특별행사접수

나주공공도서관은 오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목사골 아카데미 7월 주제 인문학을 ‘문학과 삶, 비평의 힘’이라는 주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 목사골 아카데미는 문학평론가이자 조선대학교 교수인 신형철 강사의 강연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 강사의 주요 저서로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정확한 사람의 실험’, ‘느낌의 공동체’, ‘물락의 에티카’ 등이 있다.

이번 강연은 비평의 본질과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아카데미 형식으로 비평의 개론과 서사, 시, 주제 비평에 대한 내용으로 비평의 의의와 실재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공공도서관 문헌정보과 330-6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고흥교육청, 7월 함께 성장하는 교(원)장 연찬회 개최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관내 유·초·중·고 교장(원장)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교(원)장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원의 제41조연수를 비롯한 복무 사항과 학생 건강 증진 및 급식관리, 방학 중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등 3과 3과 3과 중점사항을 안내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둔 관내 초·중교장 4명의 퇴임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직 학생을 위한 사명감으로 교직생활의 긴 여정을 견뎌왔다는 선배 교장의 퇴임사는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